



새내기들의 씩씩한 발걸음 지난 28일 평화의 전당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신입생 박기범(언론정보학 2019) 씨는 “경희대의 멋진 건물들을 보니 마음이 벅차오른다”는 소감을 전했다. 홍연지 기자 lotuspond@khu.ac.kr

미뤄지는 규정... 높아지는 구성원 우려

(총장 선출)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총장선출규정 초안 공개가 다시 미뤄졌다. 총장선출규정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새 총장 선출제가 확정된 이후, 석 달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교수의회가 성명문을 통해 총장선출규정 공개를 촉구함에 따라, 당초 법인은 2월 22일 제12차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서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법인 사무처 최관호 처장은 “25일 오전까지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초안이 전달될 것”이라며 “구성원들은 각 단위별로 회의를 소집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법인에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12일 이사진 의결을 수렴한 이후, 21일 총장선출규정 초안이 확정됐다”며 “이사장 결재 후 초안을 총장직무대행에게 전달해서 학교 측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통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총장선출규정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월 25일이 되어서도 총장선출규정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최 처장은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총장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며 “초안은 학교 측에서 추후 공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실 관계자는 “총장선출규정 초안과 관련해 3월 4일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초안은 이른바 논의 직후 공개할 방침이며 대평의를 소집해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인이 22일에 이어 25일에도 총장선출규정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초안 공개를 재차 미루자 학내 구성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은 “법인 측은 현재 ‘학교 측에 초안을 넘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구성원 대표단에게 약속한 내용을 설명 없이 반복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월 26일에 이르자 대평의는 “더 이상 초안 공개를 미루지 말라”며 총장선출규정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대평의는 공문을 통해 “27일 오후 2시까지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대평의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법인 사무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평의는 지정한 시한까지 법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당시 대평의 이성근(교수의회 전 의장) 의장은 “확정된 총장 선출제를 바탕으로 총장선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 걸릴 일도 아닌데, 벌써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장 선출 과정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인은 구성원 대표단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018학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새 총장 선출제를 의결했다. 새 총장 선출제가 합의됨에 따라 총장 선거 시행까지는 이를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총장선출규정 입안만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 양측의 막바지 의견 조율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4월 중으로 예상되었던 총장 선출이 또다시 지연되

는 것 아니냐는 구성원들의 우려가 크다.

이 의장은 “만약 총장선출규정 초안에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법인이 총장 선출을 앞두고 협상 시간을 소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의회의는 2월 27일 “법인 최관호 사무처장은 계속 허언으로 일관하면서 오늘까지도 법인 규정을 송부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2018년 11월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총장선출제 방식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통신문을 발표한 상태다.

대평의 길재호 의장직무대행은 “빠른 시일 내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8일까지 초안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편했던 KHU 알리미 SNS 형식 '경희톡'으로 탈바꿈

배지현 기자 fleitjdp@khu.ac.kr

학내 안내사항 푸시 알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KHU 알리미’가 오는 4월 새로운 기능과 함께 ‘경희톡’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경희톡은 학내 안내사항 기능에 수강과목 그룹 채팅방, 교내 정보 채널 창, 구성원 채팅기능을 추가해 정보 제공을 넘어 구성원을 위한 SNS로 자리잡고자 한다.

경희톡과 KHU 알리미의 차별점은 바로 양방향 소통이다. 경희톡은 SNS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룹 채팅방 기능을 통해 수강생들과 강사가 같은 수강그룹으로 묶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학내알림 서비스 이외의 정보도 경희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당, 학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사용성과 편의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초 출시된 지능형 민원 서비스인 ‘쿠봇’과도 연계된다. 학내 안내사항을 전달받는 것에 그쳤던 KHU 알리미와 달리 사용자가 쿠봇을 통해 직접 학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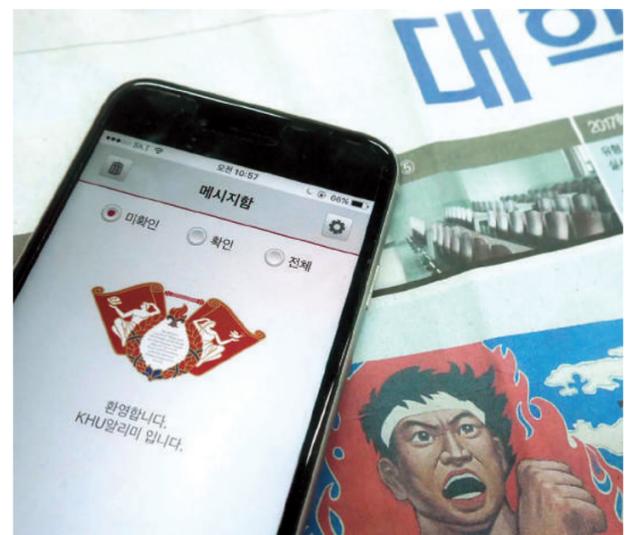
정보처 정보기획팀 최창호 과장은 “KHU 알리미가 안내사항 전달 이외 다른 기능이 없어 학내 구성원이 앱을 사용할만한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추가해 PC 버전으로도 사용 가능한 경희톡으로 찾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인 KHU 알리미는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푸시 알림 서비스로 학내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앱이다. 하지만 알림 서비스 외 특별한 기능이 없다는 점과 빈번한 톱깍 현상, 통신오류 등 시스템 문제로 구성원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KHU 알리미 앱 설치 수는 약 21,000건으로 구성원의 약 50% 남짓이다. 하지만 실 이용자 수는 더 저조할 것으로 추측된다. 과상은(경제학 2017) 씨는 “KHU 알리미 앱을 사용하는데 톱깍 현상 같은 불편한 점이 여러모로 많아 앱을 잘 이용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경희톡은 사용성과 편의성이 보다 높은 앱으로 나아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스템 오류를 최대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경희톡과 함께 알찬 대학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서경(정치외교학 2017) 씨는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에서 기대되긴 하나 경희톡이 학내정보 전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앱인 만큼 기존 앱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점검이 자주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희톡은 올해 4월부터 이용가능하며 KHU 알리미와는 별개로 새롭게 설치해야 사용가능하다. KHU 알리미는 유예기간 후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후마 개편안 본격 시행, 수강 정원 축소·'세계와 시민' 신설

김수혁 기자 shrek@khu.ac.kr

이번 학기부터 후마나타스칼리지(후마) 교육과정 및 교과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은 강좌 당 학생 수 축소, 필수교과 축소, 배분이수 영역구분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2017년 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한 ‘후마 재도약 TF’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재도약 TF는 ‘교육에서 학습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가 방식 전환, 교육 방식 개편, 교과목 개편을 3대 목표로 잡았다. 재도약 TF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졌고, 지난 1월 양 캠퍼스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서면의결하면서 시행이 결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필수교과는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박병에서 문명까지(빅문), 글쓰기 12, 시민교육(시교) 6과목에서 우사세와 시교가 신설 과목 ‘세계와 시민’으로 통합되면서 5과목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형 강의를 줄이고 소형강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빅문을 제외한 필수교과목의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를 25명으로 낮춘다.

우사세의 교과 내용은 인가탐과

세계와 시민에 나누어 편입된다. 그러나 우사세 과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사세를 필수교과로 지정하는 학년 학생을 위해 향후 최소 2년 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개편안 공개 후 중핵교수자와 학생 일부가 개편 과정에서 구성원 간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우사세 통폐합을 반대하기도 했다. 후마는 이를 반영해 추후 우사세를 배분이수 강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세계와 시민은 시교와 우사세의 내용을 아우르는 교과목이다. 후마 재도약 실행위 유기동

(지구사회봉사단) 교수는 “우사세와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민권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역사를 가르쳤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그간 분리된 두 과목이 시민권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다뤘었다면 두 과목이 통합된 세계와 시민은 시민권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우사세가 이론과 토론 위주, 시교가 팀 프로젝트 활동 위주의 과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세계와 시민은 이론 수업과 실천 학습인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가 50%씩의 비중을 가진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 면 <편집장> 최명규(소프트웨어융합학 2017)
<서울뉴스팀장> 안나연(간호학 2017)
- 명 <편집장> 이후승(한국어학 2017)

교수 칼럼

대학생 드라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김종수(한국어학) 교수 >> 7면

